

# 도를 모르고서 발을 옮긴들 어찌 길을 알겠는가?

## 1면에서 계속

남악 형산의 복엄사에는 회양이 주석하고 있었고, 남대사(南臺寺)에는 석두가 머물고 있었는데, 회양과 석두는 젊은 시절을 통해서 서로의 법을 드러내곤 했다. 어느 날 회양은 시자를 보내 석두에게 물

“어떤 것이 해답입니까.”  
“누가 그대를 속박했는가.”  
“어떤 것이 정도입니까.”  
“누가 그대를 더럽혔는가.”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누가 너에게 생사를 주었는가.”

이와 같은 얘기를 시자가 회양에게 가감없이 전하니 회양과, 마침 형산에 머물고 있던 견고(堅固)와 북종의 보적 제자인 명찬(明巖)이 말했다.

“저 둘 위에서 사자후가 난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이 선화에도 무위의 빛깔이 채색되어 있다. 해탈이나 정도, 열반을 묻는 것 자체가 분별의 앞음알이에 떨어진, 무위의 반대인 작위(作爲)다. 석두는 회양이 보낸 시자의 물음을 되받아치면서 스스로 답을 찾게 하고 있다. 말길과 생각 길마

저 끊어진 자리에서 어디에도 걸림 없는 너의 자제 한 본래성품을 보라는 것이다.

남대사는 복엄사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1km가 될까 말까 한 거리다. 복엄사에서 중국스님들이 저녁예불 하는 것을 보았는데 남대사 대중스님들도 저녁예불 중이다. 그만큼 두 절이 지척에 자리하고 있다. 남대사는 6세기 초 양나라 때에 해인 화상(海印和尚)이 창건했고, 석두회천 스님이 당나라 천보(天寶) 초년(742)에 와서 수십 년 동안 주석하면서 법을 폈다. 그래서 남대사는 석두스님의 행화도량이 된다.

석두의 스승은 청원행사(淸原行思). 휘는 회천, 속성은 진(陳)씨, 단주(端州, 광동성 조경시) 고요(高要) 출신으로 열 살 때 절에 데리고 가 불상 앞에서 ‘부처님이시다’ 하고 절을 시키니 ‘사람과 다르지 않은 이것이 부처라면 나도 부처가 되리라’ 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제단에 동물을 죽여 바치는 살생과 미신을 천성적으로 싫어하던 소년은 열네 살이 되어 절로 들어갔다. 선대가 대대로 혜능이 주석하고 있는 신주(新州)에 살았으므로 자연스럽게 육조 혜능에게 갔다. 다음해에 혜능이 입적하자 그는 나부산으로 들어가 구족계를 받았다. 처음에는 계율을 공부했으나 승조의 <열반무명론>을 읽고 물아일체의 도리를 체득한 뒤, ‘사(思)에게 가라’는 혜능의 당부대로 청원산 정거사에 주석하고 있는 사형 청원행사를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다음의 선화는 두 사람 간에 극적인 만남의 정경이다.

“어디서 왔는가.”  
“조계에서 왔습니다.”  
행사는 방장실에 놓인 불자를 들어 올리며 물었다.  
“조계에도 이런 것이 있는가.”  
“조계뿐 아니라 서천에도 없습니다.”  
“그대는 서천에 가 본 적이 있는가.”  
“갔었다면 있는 것입니다.”  
“틀렸으니 다시 말해라.”  
“화상께서도 반쯤은 말씀하십시오. 어쩌서 저더러만 말하라 하십니까.”  
“그대에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뒷날 알아듣는 이가 없을까 걱정이니라.”

이윽고 행사는 수많은 제자 가운데서 ‘빨 달린 짐승이 많지만 하나의 기린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석두를 기린아(수법제자)로 지목한다. 이후 석두는 행사 결에서 몇 년을 더 정진하고 난 뒤 남대사로 오게 되고, 오랫동안 주석한 뒤 호남 장사로 간다. 어느 날에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대중 속에서 병어리처럼 과묵하게 정진하는 약산유엄(藥山惟嚴)에게 법을 전해준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가히 앉은 것이구나.”  
“한가히 앉았다면 하는 것이 됩니다.”  
“그대는 하지 않는다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나.”  
“천 명의 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이에 석두가 약산에게 법을 드러내 보이며 계승으로 찬탄했다.

오래 함께 지내고도 이름을 몰랐더니 걸림 없는 모습에 티를 내지 않았구나. 그 옛날 현자들도 알아내지 못한 것을 예사로운 무리들이 어찌 밝히 알겠나.  
從來共住不知名 任運相將作摩行  
自古上賢猶不識 造次常流豈可明

남대사도 역시 복엄사처럼 사찰소개 게시판에 천하법원이라고 쓰여 있다. 중국 선종의 5가 중에서



남대사 전경. 석두회천 선사는 이곳에서 '초암가'를 부르고 <참동계> 선종을 일으켰다.

사진=유동영

## 도가 있는 사람... 마음을 잘 쓰는 사람 망상 전도로 광명가려 세월 헛되이 보내

석두의 문하에서 다음과 같은 3개 종파가 나왔으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 \*석두회천-약산유엄- 운암담성-동산양개-조산본적(조동종)
- \*석두회천-천황도오-용담승신-덕산선감-설봉의존-운문문언(운문종)
- \*석두회천-천황도오-용담승신-덕산선감- 설봉의존-현사다비-나한계집-법안문의(법안종)

대옹보전 뒤에 있는 조당 문턱의 기둥에 석두로 활(石頭路滑), 즉 '석두의 길은 미끄럽다'고 마조가 말하여 공안이 된 글씨가 보인다. 등은봉이 마조에 '석두 스님께 가렵니다' 하고 인사하자, '석두의 길은 미끄러울 텐데'라고 대답한 데서 유래한 공안이다. 강서의 마조와 호남의 석두는 양대사(兩大士)로 불리며 강호제현을 배출했는데, 마조가 석두의 선종을 미끄러운 길에 비유한 것은 등은봉 정도의 선기로는 감히 대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었다. 석두는 방편이 무공무전해서 선객들의 다가섬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던 바, 등은봉이 석두가 앉아 있는 선상(禪床)을 기세 좋게 한 바퀴 돌았으나 '참으로 불쌍하다'는 타박만 들었던 것이다.

회천이 석두로 불린 것은 남대사 경내 동쪽에 큰 바위가 돌출해 있는데, 회천이 그 바위머리에 작은 초암을 지어 오랫동안 주석한 까닭이었다. 실제로 남대사 동쪽 100여 미터쯤에 석두의 초암을 기리고자 누각이 하나 지어져 있고, 그 안에 붉은 법의가 임해진 석두 회천 석상(石像)이 있다. 그런데 석두의 고졸한 인품이 느껴지지 않고 웬지 경박하다. 차라리 법당 안에 봉안된 석두상이 더 당당하고 어법한 것 같다.

순례자들은 남대사 경내를 잠시 밟더니 일찍 산문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나는 경내 동쪽의 큰 바위 위에서 서성거리다가 석두가 지은 <참동계(參同契)>와 석두가 찻물로 사용했던 석간수의 돌솥을 발견하고 다가선다. 석간수는 말라 썩는 기능은 상실한 상태지만 바위에 붉은 글씨로 음각된 <참동계>는 눈길을 끈다. 석두가 저술한 <참동계>는 조동종의 일용경전(日用經典)으로 독송되고 있는데, 5언 44구로 모두 240자에 불과한 고시(古詩)지만 석두의 선풍이 고스란히 함축돼 있다.

인도의 큰 선인의 마음을 동서에서 비밀히 전하고 받으니 사람에게는 둔하고 영리함이 있으나 도에는 남북의 조사가 없다.

마음의 근원은 맑고 맑으나 결과지가 가만히 가닥쳐 흐르니 현실에 집착하면 원래 미혹한 것이요, 이치에 계합하여도 깨달음이 아니다.

굽이굽이 온갖 경계는 바뀌면서도 바뀌지 않으니 바뀌어서 서로 엇갈리거나 제 자리에 머문다.  
(중략)

현실은 궤와 푸엇이 맞는 것 같고 이치는 활과 화살이 버티는 것 같으니 말을 듣고 바로 종지를 알지 언정 멋대로 범규를 세우지 말라.

눈에 띄었을 때에 도를 모르고서 발을 옮긴들 어찌 길을 알겠는가.

걸음을 걷는 데서 멀고 가까움을 아나니 미혹하면 산화가 굳게 막힌다.

삼가 현묘함을 배우는 이에게 말하노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내 근기로는 두 구절이 가슴을 친다. '사람에게는 둔하고 영리함이 있으나 도에는 남북의 조사가 없다'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불성의 입장과 '눈에

띄었을 때에 도를 모르고서 발을 옮긴들 어찌 길을 알겠는가'는 눈앞의 한 생각에 집중하라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구절인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말씀도 간절하다. <인간록>은 이 마지막 구절에 법안(法眼)스님이 '그만 하시오. 그만 하시오. 은혜가 너무 크니 보답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주석을 붙였다고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중생은 일상에서 망상과 전도(顛倒)로 광명을 스스로 가리는 까닭에 때를 놓치는 수가 있으니, 이를 가리켜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고 하는 것이다. 도가 있다는 사람이란 별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일 뿐이다.'

공부인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망상과 허상의 삶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참동계>가 음각된 바위를 떠나 금강사리탑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탑이다. 그러나 나는 발길을 돌리고 만다. 하루의 짧은 해를 아쉬워하며 석두의 길을 돌아선다. 수불스님이 너털웃음을 지으며 순례자들을 점경하신다.

"석두의 길은 미끄럽다고 했으니 조심들 하시오. 넘어지면 큰일 나요."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은 그 옛날 석두 선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면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져 온몸이 흙투성이가 됐을 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대사를 나서서 나와 순례자 일행은 모두가 무사하다. 지삼귀명례! <계속>



글=정찬주



남악 형산에서 유일하게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금강사리탑.

(H)한국도자기  
HANKOOK CHINAWARE

현 불 샵  
입점기념  
할인판매



골든팔레스 커피세트 155,000원  
- 구성 : 커피잔 2p, 받침 2p  
- 재질 : Fine Bone China (화인 본차이나)



엠비 커피세트 43,000원  
- 구성 : 커피잔 2p, 받침 2p  
- 특징 : 은은한 파스텔톤의 커피잔과 화려한 꽃그림받침이 조화로운 커피잔세트입니다.



미니라이트 커피세트 43,000원  
- 구성 : 커피잔 2p, 받침 2p  
- 재질 : 도자기  
- 규격 : 커피잔(지름 10.6cm, 높이 5.5cm), 받침(지름 14.8cm)



로사 커피세트 43,000원  
- 구성 : 커피잔 2p, 받침 2p  
- 재질 : 도자기  
- 규격 : 커피잔(윗지름 9.2cm, 높이 6.7cm), 받침(지름 14.5cm)